

Family TableTalk

Conversation 06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졌느니라

본문

에베소서 2:12-13

생각하기

격리된 삶을 산 지도 한달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 관계할수 있는 것을 그리워 하게 된다. 우리는 운동경기 씨즌을, 생일 파티를, 프롬을, 교회의 모임을 그리워 하게 된다. 이쯤 되면, 당신은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그리워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슬픔과 격리된 마음을 직접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은, 전적으로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인간의 슬픈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을 거부함으로, 에덴의 동산에서 “집에 있어” 라는 명령이 처음으로 떨어 지게 되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외롭고, 격리된 곳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다 (창 3:23-24).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밖” 에 있었던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았었던 것을 특별히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다시한번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분리됨도, 격리됨도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가신다. 예수님의 이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의 뒷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다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서로가 화목케 된 다고 설명하게 된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서로 떨어져 지내는 이 시간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또 서로에게 영적으로 가까워 지도록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누려야 할 것이다.

- 당신은 과거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가?
- 이 한주간에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할수 있도록 무엇을 하겠는가?
- 당신은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어떠한 용기를 줄수 있으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나눌수 있겠는가?

적용

기도

주님은 우리로 부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 주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고립된 시간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기억 나도록 도와 주시고, 우리 역시도 이웃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by Chelsea Kingston Erickson

Chelsea Kingston Erickson serves as Pastor of Youth and Families at First Congregational Church in Hamilton, MA, where she lives with her husband, Steve. She holds an M.Div fro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pyu.org  CENTER FOR PARENT/YOUTH UNDERSTANDING

© 2020 Center For Parent/Youth Understanding